

D-16 4·9 총선 이슈 ① 정책 대결 실종

## 또, 묻지마 투표?

“이번에도 ‘묻지마 투표’를 해야 합니까? 정말, 투표할 생각이 안 납니다.”

4·9총선을 눈 앞에 둔 유권자들은 요즘 답답하기 그지없다.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선택 마음이 가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려 해도, 통합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23일에야 마무리되는 바람에 차분히 생각해볼 시간마저도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후보를 판단한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

공천에만 올인 ... 공약 개발 외면

검증 기회 박탈 “투표할 맛 안나”

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소속 정당과 이름 그리고 경력만 가지고서는 과연 누가 그런 후보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애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될 것

으로 확실시되면서, 당선 유력후보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구태여’ 특별한 노력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유권자들의 답답증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를 비롯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100여 명의 후보들 가운데

지금까지 눈에 띄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거나, ‘당선되면 실천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을 문서로 제시하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표방하는 후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였던 예비 후보들 가운데 남구 서정성 후보가 교육 등 7가지 분야를 업그레이드시켜 광주와 남구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7UP’이라는 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역시 남구 정기남 후보가 ‘정책 비전과 5대 공약집’을 내놓았으나 이들은 여론조사 경선에서 결국 탈락했다. 또 다른 후보 서너 명도 ‘정책공약집’을 들고 나왔지만, 지역 현안을 나열해놓거나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재탕·삼탕으로 실어놓은 데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당신은 때놓은 당선인데 뭐하러’라는 일부 후보의 나태와 오만함,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정당의 무관심, 그리고 ‘이름만 알리면 되는데, 어차피 질 텐데-’ 라는 텃다방식 후보들의 난립이 정책대결 부재와 유권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광주의 한 후보는 “올해 선거 역시 광주·전남에선 민주당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별히 정책 선거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제출해야 할 것에 대비, 구색 맞추기용 지역 현안을 찾아보고, 새 공약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 “재미있는 비엔날레 만들겠다”

오쿠이 광주비엔날레 감독 시민에 편지

“이번 비엔날레가 대중성과 작품성의 균형을 잃지 않는 ‘명품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을 생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흥겹고 역동적인 축제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11월9일) 개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쿠이 엔위저 예술감독(45)이 최근 광주시민과 한국 관객을 알리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왔다. 전시준비 기간에 감독이 시민들에 서신을 보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쿠이 감독은 이메일에서 “지난 8개월간 서울, 런던, 보스턴, 하버나, 이스탄불, 카라카스 등을 돌아보며 이들 도시의 작가들에 대한 연구를 마쳤다”면서 “미술의 흐름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전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



U대회 유치 경기대회 ‘2013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기원을 위한 건강 경기대회’가 시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광주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위지랑기자 jrwi@

### 社 告

## 제2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8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최인성 교수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한...’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이번 강좌는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한 운동기능의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좌 내용은 오는 4월 1일(화) 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주 제 :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한 운동기능의 증진방안
- 강 사 : 최인성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대한재활의학회 회원  
-대한노년중학학회 회원  
-국제재활의학회(ISPRM) 회원  
-미국 근전도·전기진단학회 회원

- 일 시 : 3월 2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 조영택·김영진·황호순 공천

〈광주 서구 갑〉 〈광주 서구 을〉 〈전남 무안·신안〉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공천 마무리

비례대표 1번 이성남·2번 송민순씨

통합민주당은 2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서구 갑 후보에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을 공천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조영택 후보와 지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관련기사 3면〉 국민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불합

시비가 불거졌던 광주 서구 을 지역구는 재심을 거쳐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의 공천을 재확정했다. 또 김홍업 의원의 공천 배제로 주목을 받았던 전남 무안·신안은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황호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4·9 총선 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공천을 마무리 짓는 등 총 195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공천을 마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리·부정전력으로 공천이 배제된 신계륜(서울 성북구) 사무총장과 이호흥(인천 남동구) 전 의원, 이상수(충청 갑) 전 노동부 장관, 김민석(영등포 을) 최고위원의 지역구 등에 대한 전략공천 후보자는

후보등록 하루 전인 24일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공천신청이 없었던 지역 39곳의 후보자 선정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공심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추가 영입을 통해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첫 여성 금융통화위원인 이성남씨를 비례대표 1번에 내정했으며 비례대표 2번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 안정권의 2배수인 40명 안팎으로 압축하고 순번 배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전문성 등을 고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 포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골드레이크 빌리지 창립 선착순 분양!

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골드레이크 빌리지. 창립 선착순 분양을 위한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 문의: 062-364-0001

### 2013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기원을 위한 건강 경기대회

2013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기원을 위한 건강 경기대회가 시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광주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회 프로그램, 참가 방법, 문의처 등 상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